JFMSE, 25(3), pp. 632~642, 2013.
수산해양교육연구, 제25권 제3호, 통권63호, 2013.
www.ksfme.or.kr
http://dx.doi.org/10.13000/JFMSE.2013.25.3.632

기여입학제의 찬반에 대한 대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분석

김 달 효†
(동아대학교)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University Students and Parents about Legacy Preferences

Dal-Hyo KIM†
(Dong-A University)

Abstract

Legacy preferences has become the key issue of educational polic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cognition of university students and parents about legacy preferences. The questionnaire which was made by researcher of this study was used as the method of this study. As a sampling, university students 360 and parents 312 were sampled. And SPSSWIN 20.0 was used as the method of data analysis.

As a conclusion, this study indicates as follows. First, the ratio of disagreement of legacy preferences was higher than the ratio of agreement of legacy preferences. But higher-income class parents were tended to agree with legacy preferences. Second, many university students and parents regarded 'economic advantages for tuition payments and a scholarship', 'excellences for education by helping financial deficit of university' as agreement reasons of legacy preferences. And many university students and parents regarded 'reproduction of social class', 'promotion of one's sense of values of mammonism' as disagreement reasons of legacy preferences.

Key words : Legacy preferences, Educational policy, Schooling, Education inequality

Ⅰ. 서 론

우리나라에서 기여입학제가 공식적으로 논의된 것은 1986년부터이다. 즉, 1986년도에 교육개혁심의회에서 사학발전정책의 하나로서 처음 제기되었고, 이후 1988년 노태우 정권에서 대통령의 지시로 기여입학제의 허용 여부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그 후, 1991년에는 기여입학자에 관한 토론회 및 공청회가 개최되는 등 여론수렴 과정이 나타나게 되고, 1993년에는 대학교육협의회 총회에서 교육부장관이 일부 사립대학에 기여입학제의 허용을 표명하였다. 또한, 1996년에는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사립대학에 기여입학제의 허용 여부를 검토하였고, 1997년에는 고려대에서 그

† Corresponding author : 051-200-7078, kdhyo@dau.ac.kr
* 본 논문은 동아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리고 2001년에는 연세대에서 기여입학제의 도입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으며, 2005년에는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다시 기여입학제에 관한 건의가 있었다. 그러나 그 때마다 기여입학제에 관한 국민의 반대 여론 및 3불정책의 고수 등으로 교육부의 공식적인 반대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기여입학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 단적인 예로, 2010년 4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기수 총장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기여입학제에 대해 " 대학의 발전을 위해 100억 이상 큰 건물 지어주는 경우 그분들 2세나 3세가 수학할 수 있는 능력 검증된다면 정원 외로 1% 정도 허용하는 안은 고등교육 내실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며 구체적인 찬성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사립대는 물론이고 국・공립대까지 포함한 대학들이 모여 만든 민간 자율 기구로, 정부에 조력해 교육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야 할 중요한 기구이다(헤럴드경제신문 2010.4.14). 이러한 중요한 기구의 회장이 공식적인 인터뷰로 기여입학제에 찬성의 뜻을 밝힐 수 있을 만큼 기여입학제의 논쟁이 다시 부각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끔 한다.

3불정책의 하나인 고교평준화 정책이 학교선택권의 논리에 의해 그동안 유지되어 왔던 견고한 틀이 약화된 시점과 맞물려 기여입학제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을 몇 가지로 크게 분류하면, 기여입학제에 관한 찬성과 반대의 쟁점 분석(김형근, 1992; 박흥수, 1992; 윤정일, 2002; 장연호, 2006), 기여입학제에 관한 주요국과의 비교 및 시사점(양성관·정일환, 2007; 염철현, 2008), 기여입학제의 타당성 및 합의가능성(김완섭, 1993; 임명규, 2009), 기여입학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김신복, 1992; 홍창남, 2008), 기여입학제와 사립대학의 재정정책에 관한 연구(김보엽, 2006; 김용석, 1992; 이상익, 2009), 기여입학제에 관한 법적 분석(박소영, 2005; 전광석, 2002; 최희경, 2005), 기여입학제에 관한 인식 분석(김동석, 2008; 양성모, 2008)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여입학제와 같이 국민들의 정서에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다거나 새롭게 시행하려는 쟁점 사안에 대한 도입의 타당성 및 가능성을 검토해보는 방법에는 크게 철학적(이론적) 접근과 실증적(실제적) 접근으로 가능할 수 있다. 즉, 기여입학제의 도입이 설득력을 지니려면 철학적·이론적 접근에서 다수의 사회구성원들이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적 타당성이 도출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실증적·실제적 접근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기여입학제에 관해 찬성한다거나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이 밝혀져야만 하는 것이다. 특히, 후자의 접근은 기여입학제 교육정책이 사회갈등을 크게 일으키지 않으며 사회통합에도 방해되지 않는다는 실질적 타당성을 갖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후자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기여입학제 쟁점의 당사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인식 결과가 시사점을 제공하기에 충분한 연구대상(대학생과 학부모)을 상대로 기여입학제에 관한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기여입학제의 찬성과 반대 및 그 이유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기여입학제의 찬성과 반대 및 그 이유를 대학생과 학부모의 특성에 따라 인식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기여입학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기여입학제의 개념

기여입학제의 개념에 관한 주요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여입학제의 개념에 관해, 김병근(1992)은 ‘개인 또는 기업이 사립대학에 토지, 건물, 기타 물질을 무상 기부하거나, 그 대학 설립이나 발전에 비물질적으로 기여

하는 등 현저한 공로가 있는 경우, 관련 자손이 당해 대학을 지원할 때는 그 대학이 정하는 적합한 기준에 의해 입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신입생 일반사정 방법에 있어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라고 하였고, 홍일식(1997)은 ‘사립대학의 재정난과 교육부실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학발전에 기여한 경우 이를 입학평가요소의 일부분으로 반영하는 제도’라고 하였다. 또한, 김형근(2009)은 ‘학교에 기여(공헌)를 하면 입학에 있어 혜택을 주는 제도’라고 하였고, 이성호(1992)는 ‘대학에 기여한 사람의 자녀나 몇 대 후손이 그 대학에 입학하고자 할 때, 선발과정에서 다소간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혹은 ‘대학에 일정액의 돈을 기부하면 그 대학의 입학자격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기여입학제에 관한 개념을 정리해보면, 기여입학제는 대학에 기여를 한 경우에 대학입학과정에서 유리하도록 혜택을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의 ‘기여’에는 물질적 및 비물질적인 것이 포함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일정액 이상을 내면 입학을 시켜주는 방식을 일컫는 기부금입학제와는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기여입학제를 정당화하려는 수단일 뿐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즉, 윤정일(2002)은 그러한 구분이 얼핏 생각하면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지만 비도덕적인 행위를 합리화시키는 것이며 그럴 듯하게 포장한 미사여구와 수식어를 베껴내면 기여입학제란 기부금입학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고, 김신복(1992)은 다분히 기부금입학제가 갖는 부정적인 인상을 완화시키면서 현실적으로는 특혜 입학결정의 대상에 신축성을 두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하는 개념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김형근(2009)은 기여입학제의 의미를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명문 사립대학들이 운영하고 있는 기여입학 특례(legacy preferences)를 참고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기여입학제는 대학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기부금을 많이 낸 사람의 자녀에게 가산점을 주는 등 우대하는 제도인데,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경우 이러한 특례입학자 비율이 10-15%를 차지하며, 이러한 기여입학 혜택은 대부분 동문의 기여에 따른 그 자손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경제적 선순환 구조에 의하여 대학이 더욱 발전하려는 의도를 갖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학에 대한 불신과 부정한 기부금입학 파장 등으로 인하여 기여입학제는 누구든지 일정한 기부금만 내면 입학을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로서 교육적 평등을 크게 해칠 것으로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기여입학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사회구성원들이 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2. 기여입학제의 쟁점

기여입학제의 쟁점은 법적 쟁점과 논리적 쟁점으로 분류하여 파악할 수 있다.

첫째, 법적 쟁점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법령들 중 기여입학제의 가능을 시사할 수 있는 조항은 「헌법」제31조 4항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를 들 수 있다. 단, 이 경우는 기여입학제를 뜻하는 내용이 대학의 자율성으로 법률이 정할 때에 한한다. 반면에, 기여입학제의 불가능을 시사할 수 있는 조항은 많은 편이다. 구체적으로, 「헌법」제31조 1항의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1조 1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1조 2항의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 1항의 '대학의 장이 입학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초·중등교육이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제34조 2항의 '특별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사회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를 들 수 있다.

둘째, 논리적 쟁점과 관련하여, 여러 학자들(김신복, 1992; 박흥수, 1992; 윤정일, 2002; 이재윤, 1992 등)이 기여입학제의 논리적 찬반의 쟁점들을 제시하였다. 이들의 논리적 쟁점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 김형근(2009)의 기여입학제 찬성과 반대 논리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여입학제 찬성의 논리[1]는 다음과 같다.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상 기본권이기 때문에, 기여입학제의 문제는 대학이 자유롭게 사회통념상 적정한 수준에서 운영 가능한 것이다.

●기여입학제는 사회적 기여문화의 확산 및 풍토를 조성하고, 대학의 재정확충 및 교육경쟁력을 강화하여 대학교육의 질적 수월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

●사립대학은 학생 등록금 의존도가 과중하지만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에 대하여 강하게 반대하고 국고지원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기여입학제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기여입학제는 과열과외나 도피성 해외 유학비용 등 음성적·낭비적 교육비 지출을 정규교육 재원으로 유인함으로써 교육문화와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기여입학제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거나 장학금 수혜를 많이 받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여입학제 반대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기여입학제는 사회계층의 세습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교육제도를 통한 특수계급이 창출되는 신분사회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대학 재정은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을 막론하고, 공교육 이념에 입각하여 국가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사립대학의 재정난 문제는 기여입학제로 해결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기여입학제는 대학입학이 물질적인 것으로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함으로써 황금만능주의의 가치관을 사회에 조장한다.

●기여입학제가 허용되면 사람들은 소위 명문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몰릴 것이기 때문에 대학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된다.

●기여입학제는 기여금의 모집·관리·운영에 있어 부정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 같은 기여입학제의 찬성과 반대의 논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설문조사 기초자료를 구성하였다. 즉, 기여입학제의 찬성과 반대의 이유를 알아보는 문항 구성에 활용하였다.

3. 선행연구 분석

기여입학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수행되어 온 선행연구들을 크게 문헌연구와 조사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기여입학제와 관련한 대표적인 문헌연구로는 홍창남(2008)의 연구와 박소영(2005)의 연구를, 그리고 조사연구로는 김동석(2008)의 연구와 양성모(2008)의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1) 실제로는 김형근(2009)은 기여입학제의 찬성 논리로 일곱 가지를 들었다. 하지만, 크게 보았을 때 여섯 번째 논리는 두 번째 논리(경쟁력 강화)와 맥락이 같고, 일곱 번째 논리는 첫 번째 논리(대학의 자율성)와 맥락이 같기 때문에, 연구자가 의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다섯 가지로 정리한 것이다.

같다.[2)]

홍창남(2008)은 기여입학제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교육정의론의 관점에서 기여입학제가 교육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즉, 능력주의 원리를 위해하는 기여입학제는 사회적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 측면에서 기여를 통하여 입학한 학생에게 유의미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박소영(2005)은 기여입학제 금지 법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평등권, 교육권, 대학의 자율권에 대해 분석하고, 이들 기본권 간의 충돌 문제를 분석하여, 이에 근거하여 헌법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즉, 학생의 평등권, 교육권 등의 보호를 위해 대표적으로 대학의 자율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 원칙인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 볼 때 기여입학제 금지 법안은 적법한 범위 안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제한되는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헌법에 기여입학제 금지 법안은 헌법에 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김동석(2008)은 서울·경기지역의 5개 대학의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기여입학제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였다. 그 주요 연구결과로, 기여입학제에 대해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기여입학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밝혔고, 행정직원의 연령이 적을수록, 직위가 높을수록, 근속년수가 높을수록 기여입학제에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양성모(2008)는 경인지역의 사립대학의 교수와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기여입학제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였다. 그 주요 연구결과로, 기여입학제가 시행될 경우 서울의 메이저급 대학에 지원자가 몰릴 것이라는 것, 전공에 따라 희망자가 편중될 것인데 특히 의학, 법학, 예체능 계열 쪽으로 편중될 것이라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음을 밝혔고, 장학재원의 확보 및 대학등록금 의존도가 낮아질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지만, 교직원의 급여 및 복지처우의 개선에 대해서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음을 밝혔다.

이상에서 간단히 살펴보았듯이, 기여입학제에 대한 조사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특히 기여입학제에 대한 조사연구의 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연구대상 차원에서도 매우 한정되게 연구가 수행되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여입학제에 대한 조사연구의 그러한 한계점을 보완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시내에 소재하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360명의 학생들과 312명의 학부모들이다. 구체적으로, 2013년 3월에 대학생들의 표집을 위해 부산시내의 2개 대학교를 임의 선정하였고, 임의 선정된 학교에 재학 중인 500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표집을 위해 부산시내의 A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 500명을 임의로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하지만,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응답하지 않았거나 회수되지 않은 설문지를 제외하고, 각각 360부와 312부를 최종 자료로 처리하였다. 표집으로 선정된 대학생과 학부모의 구체적인 특성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학부모의 특성 중 계층별의 분류는 우리나라의 소득 과세 구간을

2) 문헌연구로 홍창남(2008)의 연구와 박소영(2005)의 연구를 포함시킨 것은 이들 연구가 기여입학제의 중요한 이론적 부분을 포괄한다는 판단 때문이며, 조사연구로 김동석(2008)의 연구와 양성모(2008)의 연구를 포함시킨 것은 기여입학제와 관련한 조사연구로는 이들 두 연구가 전부이기 때문이다.

기준으로 하였다. 즉, 연소득 4,600만원 이하의 가정을 저소득층으로, 연소득 4,600만원~8,800만원의 가정을 중소득층으로, 연소득 8,800만원 이상의 가정을 고소득층으로 분류하였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sampling

classification			N(%)	total
students	sex	male	162(45%)	360 (100%)
		female	198(55%)	
	grade	1	83(23.1%)	
		2	97(26.9%)	
		3	110(30.6%)	
		4	70(19.4%)	
	major	humanities & social science	115(31.9%)	
		natural science	88(24.4%)	
		business	110(30.6%)	
		art & sports	47(13.1%)	
parents	age	thirties below	92(29.5%)	312 (100%)
		forties	103(33.0%)	
		fifties	78(25.0%)	
		sixties above	39(12.5%)	
	school career	high school	106(34.0%)	
		college	155(49.6%)	
		graduate school	51(16.4%)	
	incomes	low	91(29.2%)	
		middle	154(49.4%)	
		high	67(21.4%)	

2. 연구 도구

기여입학제의 찬반에 관한 대학생과 학부모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지를 연구자가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총 질문 문항은 두 가지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하나는 '기여입학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를 묻는 것이었고, 찬성과 반대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다른 하나는 '기여입학제를 찬성한다면 그 이유를 보기의 다섯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고, 반대한다면 그 이유를 보기의 다섯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때의 찬성 이유 다섯 가지와 반대 이유 다섯 가지는 이론적 배경에서 밝힌 기여입학제의 쟁점들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3. 자료처리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단순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자료처리는 SPSSWIN 20.0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Ⅳ. 연구 결과

기여입학제에 대한 대학생의 찬반 인식과 학부모의 찬반 인식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기여입학제에 대한 대학생의 찬반 인식

기여입학제에 대한 대학생의 찬반 여부를 알아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첫째, 대학생의 성별로 볼 때, 남자(56.2%)와 여자(51.5%) 모두 근소한 차이로 기여입학제에 대해 좀 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년별로 볼 때, 1학년(60.2%)과 4학년(54.3%)은 기여입학제에 대해 좀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2학년(69.1%)과 3학년(55.5%)은 기여입학제에 대해 좀 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공별로 볼 때, 인문사회계열(81.7%)과 자연계열(63.7%)은 기여입학제에 대해 좀 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영계열(70.9%)과 예체능계열(76.6%)은 기여입학제에 대해 좀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여입학제에 대해 반대하는 인문사회계열과 기여입학제에 대해 찬성하는 경영계열 및 예체능계열은 기여입학제의 찬성과 반대 인식에 있어 상대적으로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students' recognition on agreement / disagreement of legacy preferences

classification			examples		total
			①agree	②disagree	
students	sex	male	71(43.8%)	91(56.2%)	360 (100%)
		female	96(48.5%)	102(51.5%)	
	grade	1	50(60.2%)	33(39.8%)	
		2	30(30.9%)	67(69.1%)	
		3	49(44.5%)	61(55.5%)	
		4	38(54.3%)	32(45.7%)	
	major	humanities & social science	21(18.3%)	94(81.7%)	
		natural science	32(36.3%)	56(63.7%)	
		business	78(70.9%)	32(29.1%)	
		art & sports	36(76.6%)	11(23.4%)	
	total		167(46.4%)	193(53.6%)	

그리고 기여입학제의 찬반 이유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을 알아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대학생들이 기여입학제를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여입학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등록금 부담을 낮추거나 장학금 수혜를 많이 줄 수 있기 때문'(55.0%)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 이유로는 '기여입학제는 대학의 부족한 재정에 도움을 주고 대학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확보해주기 때문'(27.6%)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대학생들이 기여입학제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여입학제는 사회계층의 세습효과를 가져오기 때문'(44.0%)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 이유로는 '기여입학제는 황금만능주의 가치관을 사회에 조장하기 때문'(36.3%)으로 나타났다.

<Table 3> students' recognition on the reason about agreement/disagreement of legacy preferences

classification	examples	N(%)	total (%)
reason of agreement	①legacy preferences gives students economic advantages	92(55.0)	167 (100%)
	②legacy preferences gives universities financial advantages	46(27.6)	
	③legacy preferences gives social donation climates	13(7.8)	
	④legacy preferences promotes educational culture and condition	10(6.0)	
	⑤legacy preferences depends on autonomy of universities	6(3.6)	
reason of disagreement	①legacy preferences gives negative effects on social status	85(44.0)	193 (100)
	②legacy preferences gives mammonism	70(36.3)	
	③legacy preferences gives rich-get-richer, poor-get-poorer phenomenon to education	26(13.5)	
	④legacy preferences is not good method to solve financial problem of universities	7(3.6)	
	⑤legacy preferences gives injustice	5(2.6)	

2. 기여입학제에 대한 학부모의 찬반 인식

기여입학제에 대한 학부모의 찬반 여부를 알아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첫째, 학부모의 연령별로 볼 때, 30대 이하(60.8%)와 50대(51.3%)는 기여입학제에 대해 좀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40대(60.2%)와 60대(69.2%)는 기여입학제에 대해 좀 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력별로 볼 때, 고졸 이

하(60.4%)와 대졸(56.8%)은 기여입학제에 대해 좀 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학원졸(78.4%)은 기여입학제에 대해 좀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소득별로 볼 때, 저소득층(58.3%)과 중소득층(58.4%)은 기여입학제에 대해 좀 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고소득층(70.1%)은 기여입학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parents' recognition on agreement / disagreement of legacy preferences

classification			examples		total
			①agree	②disagree	
parents	age	thirties below	56(60.8%)	36(39.2%)	312 (100%)
		forties	41(39.8%)	62(60.2%)	
		fifties	40(51.3%)	38(48.7%)	
		sixties above	12(30.8%)	27(69.2%)	
	school career	high school	42(39.6%)	64(60.4%)	
		college	67(43.2%)	88(56.8%)	
		graduate school	40(78.4%)	11(21.6%)	
	incomes	low	38(41.7%)	53(58.3%)	
		middle	64(41.6%)	90(58.4%)	
		high	47(70.1%)	20(29.9%)	
	total		149(47.8%)	163(52.2%)	

그리고 기여입학제의 찬반 이유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을 알아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학부모들이 기여입학제를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여입학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등록금 부담을 낮추거나 장학금 수혜를 많이 줄 수 있기 때문'(45.6%)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 이유로는 '기여입학제는 대학의 부족한 재정에 도움을 주고 대학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확보해주기 때문'(40.9%)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학부모들이 기여입학제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여입학제는 사회계층의 세습효과를 가져오기 때문'(46.6%)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 이유로는 '기여입학제는 황금만능주의 가치관을 사회에 조장하기 때문'(35.6%)으로 나타났다.

<Table 5> parents' recognition on the reason about agreement/disagreement of legacy preferences

classification	examples	N(%)	total (%)
reason of agreement	①legacy preferences gives students economic advantages	68(45.6)	149 (100%)
	②legacy preferences gives universities financial advantages	61(40.9)	
	③legacy preferences promotes educational culture and condition	10(6.7)	
	④legacy preferences gives social donation climates	5(3.4)	
	⑤legacy preferences depends on autonomy of universities	5(3.4)	
reason of disagreement	①legacy preferences gives negative effects on social status	76(46.6)	163 (100)
	②legacy preferences gives mammonism	58(35.6)	
	③legacy preferences gives injustice	15(9.2)	
	④legacy preferences gives rich-get-richer, poor-get-poorer phenomenon to education	10(6.1)	
	⑤legacy preferences is not good method to solve financial problem of universities	(2.5)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기여입학제에 관한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기여입학제의 찬성과 반대 및 그 이유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학생의 경우 성별로 볼 때 남학생과 여

학생 모두 근소한 차이로 기여입학제에 대해 좀 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년별로 볼 때 1학년과 4학년은 기여입학제에 대해 좀 더 찬성하는 반면, 2학년과 3학년은 기여입학제에 대해 좀 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공별로 볼 때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은 기여입학제에 대해 좀 더 반대하는 반면, 경영계열과 예체능계열은 기여입학제에 대해 좀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여입학제에 대해 반대하는 인문사회계열과 찬성하는 경영계열 및 예체능계열은 상대적으로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경우, 연령별로 볼 때 30대 이하와 50대는 기여입학제에 대해 좀 더 찬성하는 반면, 40대와 60대는 기여입학제에 대해 좀 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력별로 볼 때 고졸 이하와 대졸은 기여입학제에 대해 좀 더 반대하는 반면, 대학원졸은 기여입학제에 대해 좀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별로 볼 때, 저소득층과 중소득층은 기여입학제에 대해 좀 더 반대하는 반면, 고소득층은 기여입학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여입학제를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대학생과 학부모 모두 '기여입학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등록금 부담을 낮추거나 장학금 수혜를 많이 줄 수 있기 때문'과 '기여입학제는 대학의 부족한 재정에 도움을 주고 대학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확보해주기 때문'으로 나타났고, 기여입학제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대학생과 학부모 모두 '기여입학제는 사회계층의 세습효과를 가져오기 때문'과 '기여입학제는 황금만능주의 가치관을 사회에 조장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전반적으로 기여입학제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여입학제에 대한 조심스러운 접근과 반성이 더욱 요구된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기여입학제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두 가지 주장을 강하게 내세운다. 하나는 소수의 기여입학제를 통해 다수의 일반학생들에게 장학금과 기타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립대학들의 재정난을 해결하는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첫 번째 주장은 기여입학제를 통해 입학하려는 학생(학부모) 쪽에서는 소수의 명문대학교들에 한해 희망할 것이기 때문에 설령 일반학생들에게 장학금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할지라도 소수의 명문대학교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기여입학제는 그와 같은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내어 잘못된 방법을 합리화 시킨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에 대해, 윤정일(2002)은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 기여입학제는 입학이라는 상품을 공개적으로 매매하는 입학 공개 입찰제이다. 이는 아파트 청약제나 입도선매제와 같은 것이다. 알기 쉽게 설명하면, 부유한 가정에서 선불로 기부금을 내면 훗날 그 자녀를 정원 외로 선발하고, 기부금을 공개적으로 학교시설비로 투자하여 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함과 동시에 빈곤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에게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얼핏 생각하면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이 느껴진다. 특히 공개적이라는 말과 교육여건 개선 및 장학금 지급이라는 말이 비도덕적인 행위를 합리화시키고 있다(pp.199-200).

소수의 기여입학제가 사립대학들의 재정난을 해결하는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두 번째 주장은, 효율성과 대학재정 문제만을 중요하게 간주하고 평등성과 공정성 같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들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즉, 기여입학제가 사회정의(social justice)에 부합하는 것인가 하는 비판을 받는다. 이에 대해, 윤정일(2002)은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 우리 사회에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 그러나 해결할 수 없는 일은 더욱 많다. 박사학위는 돈으로 살 수 없다. 대학의 학점도 그러하고, 선거에서 표도 그렇다. 벼슬자리도 매한가지다. 인간의 양심은 더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것들을 돈으로 사고 팔 때 우리는 부정행위라고 심판한다. 기여입학제는 분명히 사립대학의 재정난을

> 해결하기 위한 정도가 아니다. 이것은 옆길이고 샛길이며, 즉흥적·근시안적 편법인 것이다(정범모, 1993). 입학과 교환하는 기부금제를 정도(正道)라고 한다면, 세상의 정도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p.198).

기여입학제의 단순한 찬성과 반대의 논리를 넘어, 기여입학제가 제도적·규범적으로 허용되면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풍토)가 어떻게 형성될지를 고민해보아야 한다. 즉, 기여입학제가 합법적으로 허용되면, '돈이면 다 된다.' 는 사고방식이 사회적으로 더욱 팽배해질 것이고, 사회적 강자(가진 자)의 지배적 위상이 더욱 공고해지지 않을까 고민해보아야 한다. 또한, 기여입학제는 실제로는 사회적 강자(가진 자)가 능력주의 사회에서 실패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 사용되지만, 마치 사회에 '기여' 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기존 지배구조를 정당화하는 방편으로 이용될 수 있다. 설령, 기부입학제라는 개념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기부' 가 아니라 사회적 강자(가진 자)의 학업적 무능력을 감추거나 세탁하기 위한 합법적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기여(기부)입학제는 사회정의와는 무관한 것이고 오히려 반하는 것임을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헌법」제3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뜻하는 '능력' 은 (기여입학제가 강조하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의미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와 건강한 사회에서는 '교육의 기회균등' 의 가치가 존중되고 실현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Reference

Choi, H. K.(2005). The constitutional study on the contribution enrollment system,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Law* 8(2), 201~233.

Go, S. L.(1992). A tentative plan of regulations for "admission-by-donation" in universities and colleges, *Korean Journal of Higher Education.* 4(1). pp.95-102.

Herald Economic Newspaper(2010.4.14).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41&newsid=20100414094426731&p=ned

Hong, C. N.(2008). Educational justice of college admission through contribution,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26(3), 25~48.

Jang, Y. H.(2006). A study on validity of contribution preferences, Master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Kim, B. Y.(2006). Issues and tasks on private schools finance policy,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24(3), 165~191.

Kim, D. S.(2008). A study on college entrance policy, Master thesis, Ajou University.

Kim, H. K.(1992). A rational approach of introducing the "admission-by-donation" in universities and colleges. *Korean Journal of Higher Education* 4(1), 103~118.

Kim, H. K.(2009). A review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prohibition of the contribution preference admission policy, The *Journal of Law of Education* 21(2), 45~64.

Kim, S. B.(1992). An argument against "admission-by-donation" in universities and colleges, *Korean Journal of Higher Education* 4(1), 9~21.

Kim, W. S.(1993). A study on validity of contribution preferences admission policy, Master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Kim, Y. S.(1992). A study for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of the private universities in Korea, Master thesis, Kyung Hee University.

Lee, K. J.(2003). Contribution enrollment system and public interest in educational sector, *The Journal of Democratic Law* 23. 63`81.

Lee, S. H.(1992). The prerequisites and

possibilities for enforcement of "admission-by-donation" in universities and colleges, *Korean Journal of Higher Education* 4(1), 77~94.

Lee, S. H.(1992). The prerequisites for enforcement of "admission-by-donation" in universities and colleges, *Korean Journal of Higher Education* 4(1), 47~62.

Lee, S. I.(2009). A study on contribution preferences of private universities, Master thesis, Korea University.

Lee, Y. S.(2000). A study of improvement of university admission systems, Master thesis, Yonsei University.

Lim, M. K.(2009). Political philosophic analysis of contribution-conditional college admission and the possibility of consent, Master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Park, H. S.(1992). A supporting argument for "admission-by-donation" in universities and colleges, *Korean Journal of Higher Education* 4(1), 1~8.

Park, S. Y.(2005). Constitutional analysis on prohibition of the donation-based Admissions,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32(2), 321~344.

Yang, S. K., & Chung, I. H.(2007). U.S. system of college admission: focusing on individualized review,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Education* 17(3), 167~190.

Yang, S. M.(2008). A study on recognition of university staff about contribution preferences, Master thesis, Ajou University.

Yoon, J. I.(2002). A criticism of Korean education 2001: issues of contribution preferences, Seoul: KEDI.

Yum, C. H.(2008). Indian affirmative action and its implications on Korean university entrance policy,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Education* 18(1), 171~191.

● 논문접수일 : 2013년 03월 28일
● 심사완료일 : 1차 - 2013년 05월 20일
● 게재확정일 : 2013년 05월 23일